

기생충교실

요충

생활사(감염경로)

요충은 우리나라에 있어 회충, 편충 다음으로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른보다 어린이가 많이 감염된다. 특히 고아원 같은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 많이 감염되고 있다.

요충은 1cm미만의 하얗고 작은 벌레로 인체의 맹장부에 기생하고 있다. 가 산란기가 되면 대장으로 내려가 항

문 주위에 기어 나와 그 근처의 점막 피부 등에 산란한다.

알은 산란한지 약 5시간만 지나면 성숙란이 된다. 취침시 이불 속에서 항문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 요충은 다른 장내기 생충과 같이 장내에서 배란되는 것이 아니고 항문 주위에 산란하므로 그충란은 내의 침구 등에 오염되는 수가 많아 자가감염을 일으키는 수가 많다. 그리고 요충란은 비교적 외제에 대하여 저항력이 강하고 이미 난자 속에 성숙한 애벌레가 들어 있어서 곧 경구적으로 감염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치료하더라도 집안에 충란이 오염되어 있는 한 재감염으로 인하여 완전 치료가 곤란하다. 만약에 가족 중에 요충이 감염되어 치료를 요할 때는 전 가족이 동시에 치료를 하여야 한다.

이다. 고온 다습에서는 안정성과 보존성이 위태롭다. 그러므로 이 조건은 꼭 표기되어 실제로 중요한 일이다. 「되도록 실온에 보존한다」는 것이 통상이었으나 이것 보다도 보존의 최고(最高), 최저(最低), 최적(最適) 온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보존 조건에 따라 침전물이 생긴다든가(0℃에서는 침전이 생기니…… 35℃에서는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 꼭 4~5℃에서 보

존해야 한다등)와 같이 면밀하고 자세한 과학적인 취급법이라야 한다.

주로 드러그스(Drugs)에 대한 의약품에 관한 것 그 중에서도 제제와 제약(약품)에 대한 것만을 중심으로 그 일반을 FDA의 취급·내용에 따라 간략하게 기술하는 바이다.

〈필자=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이박